

## 진로교육 바로 알기

### 고등학생의 희망직업

고등학교 시기는 진로를 계획하는 시기입니다. 진학과 취업의 큰 갈래로 나누어지기 때문에 희망하는 직업이 보다 현실적이고 구체적이며, 특정 직업에 몰리기보다 다양한 직업군이 나타납니다.

고등학생의 희망직업 (단위: %)

순위	직업명	비율	순위	직업명	비율
1	선생님(교사)	12.9	6	생명·자연과학자 및 연구원	3.2
2	기계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3.9	7	군인	2.8
3	경찰	3.8	8	요리사	2.8
4	정보시스템 및 보안 전문가	3.6	9	공무원	2.4
5	간호사	3.4	10	건축가·건축디자이너	2.1

2015년에 실시된 학교 진로교육 실태조사에 따르면,

고등학생이 희망하는 직업은 선생님, 기계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경찰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희망 전공계열의 경우, 남학생은 기계·금속 관련 학과(10.2%)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여학생은 경영·경제 관련 학과(8.2%)가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컴퓨터·통신, 디자인, 사회과학, 언어·문학 관련 학과가 뒤를 이었습니다.

자녀가 대학 진학을 원한다면 지원하고자 하는 학과에 대한 정보를 얻어 학생부 종합전형 등의 대입전형을 준비해나가는 것이 좋고, 취업을 원한다면 해당 분야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아직 자녀의 진로가 명확하지 않다면 진로 동아리나 진로체험을 통해 진로의 방향성을 찾을 수 있으니, 다양한 경험을 하고 진로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출처: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자녀 진로상담

### 여름방학을 활용한 진로 준비

이제 곧 여름방학입니다. 방학은 학생들이 학기 중에 느꼈을 심신의 피로를 풀고 다음 학기를 준비하기 위한 재충전의 시간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학생들은 방학 기간에도 부족한 학업을 보충하느라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번 방학에는 학업 보충 외에도 조금씩 짬을 내어 운동 및 레저 활동을 통해 체력을 단련하고, 가족여행이나 공연·전시 관람 등을 통해 새로운 문화를 접해봄으로써 견문을 넓힐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주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이와 더불어 대학 진학, 취업 등을 준비하는 시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특히 자녀가 고등학교 1·2학년이라면 지망하는 대학교와 학과에 대한 정보를 탐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각 대학의 홈페이지를 통해 개설학과, 교육내용, 입학전형기준 등을 상세하게 확인할 수 있으며, 4년제 대학교는 대입정보포털 어디가([www.adiga.kr](http://www.adiga.kr))를 통해, 전문대학은 전문대학포털([www.mycollege.kr](http://www.mycollege.kr))을 통해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취업을 원하는 학생이라면 지망하는 기업의 채용기준 등을 알아보고 관련 자격증 취득을 준비해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녀가 3학년이라면 대학 입학에 필요한 자기소개서, 취업을 위해 필요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을 작성해놓은 후 대학입학 원서접수 혹은 취업서류 제출 시점까지 점차 다듬어나갈 수 있도록 조언해주는 것도 자녀가 미래를 차근차근 설계해나가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녀와 학부모님께 모두 유익하고 보람 있는 방학이 되길 바랍니다.

(출처: 커리어넷([www.career.go.kr](http://www.career.go.kr)) > 진로상담 사례)

## 직업 경로 이야기

### [1등만이 성공은 아니에요 - 성해연(한국배구연맹 심판)]

#### ■ 연습게임 때 호루라기를 불며 심판이 되는 꿈을 꾸다

성해연 심판은 어릴 때부터 운동을 좋아했다. 오빠가 야구를 해서인지 그녀는 스포츠에 익숙했다. 초등학교 4학년 때 배구를 시작하면서 그녀는 최고의 국가대표 선수가 되는 꿈을 꾸었다. 주변에서 쉬라고 말려도 코트를 벗어나지 않을 정도로 그녀는 배구에 열심이었다. 중학교에 올라가자 초등학교 때와는 다르게 수업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운동만 해야 하는 생활이 이어졌다. 그렇게 선수생활에 전념하던 그녀는 경기 중에 심판의 모습을 보며 관심을 가지게 되었지만 막연한 생각에 불과했다.

#### ■ 국내심판, 그리고 국제심판이 되다

성해연 심판의 선수생활은 그다지 화려하지는 않았다. 그녀는 삼성 팀에 들어갔다가 다시 대학교로 갔다. “열정을 가지고 만족할 만큼 배구를 했어요. 하지만 신장에서 오는 한계를 느꼈고 무엇보다 공부에 대한 욕심이 생겼어요.” 선수로 성공할 수 있다는 확신이 없었던 그녀는 새로운 경험을 해보고 싶었다. 때마침 우연히 만난 중학교 시절 코치로부터 심판 일을 부탁받게 된 그녀는 별 생각 없이 한 그 일에 흥미를 느끼게 되었다. “그때부터 심판으로 활동했어요. 마침 제 고향 부산에서 아시안게임이 열렸는데 심판으로 참가하게 되었죠. 당시 저는 국내심판이었는데 국제심판이 너무 멋있어 보였어요. 그때 국제심판이 되고

싶다는 마음이 확고해졌죠.” 그녀는 그렇게 다시 공부를 시작했고 그로부터 2년 뒤인 2004년 프로심판에 입문했다. 이후 2009년에는 시험을 거쳐 국제심판이 되었다.

#### ■ 여러 가지 길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세요

성해연 심판은 국제연맹의 지명을 받아서 월드리그에서 활동하는 세 명 중 한 명이다. 프로 배구의 경우 보통 매년 10월, 11월에 개막해 5~6개월 동안 총 238회의 경기를 한다. 보통 일주일에 다섯 번의 경기를 맡는데, 그중 주말 경기는 빠지지 않는다. 지방에서 하는 경우는 하루 전에 미리 도착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집에 돌아가지 못하고 다음 경기 장소로 이동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그런 만큼 체력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기도 하다.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되 한정된 좁은 틀에서 선택하지 말고 꿈을 크게 꾸었으면 좋겠어요. 그 꿈에 맞는 더 큰 세상이 있다고 생각해요. 자율성에 바탕을 둔 선택이 만족감을 주는 것 같아요. 저는 배구가 좋아서 시작했지만 배구로 성공한 사람은 아니에요. 도중에 단절된, 어찌 보면 실패한 사람이죠. 하지만 스포츠는 선수로서의 길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저 역시 한 가지만 보고 뛰어들었다가 절망한 경험이 있으나 잘 살펴보니 연결된 다른 길도 많더라고요. 세상에는 참 다양한 직업, 다양한 삶이 있어요. 호기심을 가지고 많이 경험해보세요.”

(출처: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창의적 커리어패스 사례집)



#### 자녀의 사춘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갑작스러운 자녀의 사춘기가 곤혹스러운 학부모님을 위해 진로레시피에서 사춘기 자녀를 이해하고 소통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방송주제	- 사춘기의 이해: 어른은 모르는 사춘기 아이의 특징 - 사춘기의 대처: 사춘기 아이들과의 소통(교사편, 부모편)
방송정보	- 6월 20일, 22일, 24일 - 출연자: 이창욱(한국마인드케어연구소)
청취방법	- PC: 팟빵 웹사이트, 유튜브 웹사이트 → '진로레시피' 검색 - 모바일: 팟빵 앱, 맘에 쏙 진로 앱, e-진로채널 앱, 유튜브 앱 → '진로레시피' 검색
QR코드	 <p>← 팟빵 앱 다운로드</p> <p>* QR코드를 통해 팟빵 앱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p>

#### 진로레시피가 부산에 뒀다!

온라인에서만 만날 수 있었던 진로레시피를 오프라인 강연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2시간 동안 이어지는 진로레시피 강연을 들으러 부산으로 오세요!

행사명	2016 부산진로진학박람회(학부모를 위한 진로레시피)
일정	2016년 7월 9일(토) 11:00 ~ 13:00
장소	부산시 BEXCO 제 1 전시장 214~215호
정보	주제: 과학 기술의 발전과 변화 그리고 다시 생각하는 진로 이야기 출연자: 임상빈 박사(공학스쿨 대표)

드림레터는 이번 호(17호)를 끝으로 상반기기를 마칩니다.  
<1호부터 17호까지의 드림레터 다시보기 방법>  
- PC: [www.career.go.kr](http://www.career.go.kr) 접속 → 진로교육자료 → 드림레터  
- 모바일: '맘에쏙 진로' 검색 → 드림레터  
9월에 18호로 다시 만나요!